

‘국민 안내양’ 김정연 “고향 사랑 마음 모여 경제 살아나길”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동참도

“출향민과 고향을 잇는 가교 역할에 동참하게 돼 기쁘요. 고향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이 모여 전남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기를 바랍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전국을 버스로 돌며 어머니와 소통하는 ‘국민 안내양’ 김정연씨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를 이어갔다.

김씨는 33년 차 트로트 가수로 ‘고향버스’, ‘어머님’ 등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 안내양으로 10년간 활약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함께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육성하고 있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를 함께 홍보하는 영상을 자체 제작해 제공하는 등 전남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운영 중인 ‘남도장터’의 농수축산물 생산 현장에 찾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노래 ‘고향버스’를 남도장터 홍보송으로 개사해 인기를 끄는 등 전남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린 공로로 2020년 12월 전남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를 이어감과 동시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액 30% 이내의 담례품으로 지역 농수축산·특산물 등을 제공한다. 기부자에게는 또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진소방서, 강진탐진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최근 강진탐진로타리클럽과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취약계층의 사고 없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활안전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등 교류와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소방서 제공

동강대, 창의적 영상 제작 ‘역량 UP! UCC 경진대회’ 시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생들이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학교를 알리고 전공 역량도 향상시키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동강대 교양교육지원센터(센터장 허지혜)는 최근 본관 1층 총장실에서 ‘2022학년도 역량 UP! UCC (User Created Contents)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UCC 경진대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미디어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작품 5건을 선정했다.

간호학과 박나영(1년)씨가 ‘나의 미래를 위한 무한 도전’으로 영예의 대상 주인공이 됐다.

금상은 미디어콘텐츠과 정은혜(1년·나의 미래를 위한 도전)씨가 차지했다.

미디어콘텐츠과 김혜정(1년·전공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지식 습득 경험담), 임상병리학과 표가연(1년·교양에서 만난 사람들), 유아교육학과 신운서(3년·나의 꿈, 유튜브/나의 미래 멋진 유튜브) 씨 등 3명이 은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김정규 교수

한국민간경비학회 회장 선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김정규(사진) 교수가 최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민간경비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민간경비학회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지원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민간경비, 경찰학, 범죄학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경찰분야 학술단체다. 150여개 대학의 교수 및 연구자를 비롯해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한국경비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정규 교수는 “학회장으로서는 치안서비스 협력 생산에 관한 폭넓은 학술활동과 연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민간경비학회에서 편집위원장과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찰청 과학교수사자문위원, 한국민간보안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어선 선박사고 관련 구호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4일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선박사고 관련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 구조요원에 필요한 긴급구호품 20세트를 전달하고 재난심리지원을 위해 상담활동가를 파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인사

◆동구청

- ◇4급 승진 ▲김명자 복지정책과
- ◇6급 승진 ▲민지환 일자리경제과 ▲박태경 글로벌축제추진단 ▲송진희 기획예산실 ▲박미선 보건사업과 ▲김용선 서남동1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공각지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두뇌공조(재)	15 헬로킴지 체육교실(재) 30 반짝이는 프리체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양코르 설특집 다큐 어른 김장하	00 SBS 12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0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20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2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00 뉴스브리핑
03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문계공향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0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0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TBC 특별기획 국민의 힘 당권주자에게 듣는다 (안철수)
0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08	30 내 눈에 공각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0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코믹 드라마 위기의 X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트롤리
11	30 KBS 뉴스라인	00 스튜디오 K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더 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왕스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극한직업
08:00 디딩동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둘레길	〈겨울왕국, 캐나다 서부 -나는 하얀 낙원에 산다〉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함께하니 행복해 2부 무릎차 산다〉
09:05 슈퍼퍼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블루	16:15 페파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디딩동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7일(음 1월 17일 丙申)

<p>36년생 전년의 기쁨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48년생 방황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60년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 내고 단연코 이루어 내는 쾌거가 있다. 72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될 것이니라. 84년생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후련하겠다. 96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8, 99</p>	<p>42년생 정도를 집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4년생 의욕이 앞서더라도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66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다. 78년생 외관은 보잘 것 없더라도 실속은 있느니라. 90년생 말은 아끼고 무겁게 하는 것이 낫다. 02년생 공금에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행운의 숫자 : 39, 73</p>
<p>37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는 이치이니라. 49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리니 기회 경사라 할 만하다. 61년생 기회가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사람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73년생 불가피한 인연으로 영향력 하에 놓인다. 85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97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4, 59</p>	<p>43년생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완성에 이르던 일도 버리게 될 것이다. 55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관계를 개선하면 예기치 못한 기회와 접하게 된다. 79년생 여명에 밀려 가는 어두움을 보게 되리라. 91년생 과당성 있는 집행이 증하다. 03년생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25, 93</p>
<p>38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시키리라. 50년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62년생 외의 재물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74년생 길한 징조가 아주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86년생 원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98년생 길조가 소나나면서 만사여의하리라. 행운의 숫자 : 06, 60</p>	<p>44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때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56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68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80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92년생 광복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04년생 확인과 검토는 오류를 방지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96</p>
<p>39년생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니라. 51년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63년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87년생 상호적이니 만큼 일방만을 댄할 일이 아님을 알라. 99년생 돌발 상황이 속출하면서 정신 없겠다. 행운의 숫자 : 33, 65</p>	<p>45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 57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하다. 69년생 서로 맞지 않다면 오히려 폐해를 인게 된다는 것을 알라. 81년생 대세에 순응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93년생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05년생 허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7, 54</p>
<p>40년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52년생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64년생 공돌이 왔던 것이 분명하게 가닥이 잡힌다. 76년생 흑흑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88년생 근간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00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5, 75</p>	<p>34년생 어떻게 조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46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준다. 58년생 관행에 얽매어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70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82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쁨이 보인다. 94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실행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3, 95</p>
<p>41년생 활로가 트이는 기반이 조성되리라. 마지막을 주목하라. 53년생 노력 못지않게 우연한 행운도 따라 준다. 65년생 미리 준비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77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서야 한다. 89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01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43, 83</p>	<p>35년생 의외로 앞당겨져서 진행될 수도 있는 대국이다. 47년생 사용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59년생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다. 71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만한 예로 사할이 보인다. 83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95년생 당면 과제부터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16, 58</p>